

세계연합신문  
모바일 보기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100년농협



제1260호 (2023년 8월 25일 금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보관 중이던 1T 희석해 방출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24일 오후 1시께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6월26일 촬영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 설비 스위치.

### 내년 3월까지 보관 오염수 2.3% 방류 계획…日어민·중국 등 반발

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일본 정부의 지난 22일 방류 결정에 따라 이날 사전 작업을 거쳐 수조에 보관하던 오염수를 오후 1시로부터 방류하기 시작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이며,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반 만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증제거설비(ALPS)를 거쳐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km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 앞 바다에 방출했다.

ALPS로 정화 처리하면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62종을 제거할 수 있으나, 삼중수소(트리튬)와 미량이기는 하지만 탄

소14 등의 핵종도 남는다.

도쿄전력은 ALPS로 거를 수 없는 삼중수소는 바닷물과 희석해 농도를 일본 규제 기준의 40분의 1인 0당 1천500베크렐(Bq) 미만으로 만들어 내보내기로 했다.

도쿄전력은 이미 지난 22일 오후 오염수 약 1t를 희석 설비로 보낸 뒤 바닷물과 혼합해 대형 수조에 담았다.

도쿄전력은 수조에서 채취한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를 확인한 결과 기준치인 0당 1천500Bq를 훨씬 밀돌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방류 이후 원전 인근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방류 직후 채취한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 측정 결과는 이르면 27일 공개된다.

도쿄전력은 하루에 약 460t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는 작업을 17일 간 진행해 일차적으로 오염수 7천800t를 바다로 내보낼 계획이다.

다만 도쿄전력은 이날은 오후에 방류

가 개시된 만큼 하루 방류량이 200~210t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 3월까지 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염수 양은 3만1천200t으로, 이는 현재 보관 중인 오염수의 2.3% 수준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이미 약 134만t의 오염수가 1천여개의 대형 탱크에 들어 있으며, 현재도 원전 부지로 유입되는 지하수와 빗물 등으로 인해 오염수는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염수 방류가 대체로 30년 가량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향후 방류 기간을 확언하기는 어렵다.

일본 정부는 사고 원자로를 2041~2051년까지 폐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폐쇄 작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이 역시 불확실하기는 마찬가지다.

방류 안전성을 점검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IAEA 직원들이 방류 첫날부터 현장에서 배출되는 오염수가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감시·평가하고 감시 자료

를 실시간 공개한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IAEA가 현지에 머무르며 계속 검증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어민과 중국 등 주변국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사카모토 마사노부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일본 정부가 방류일을 결정한 지난 22일 "어업인과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는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는 것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60km 떨어진 후쿠시마현 대표 도시 중 한 곳인 이와키 시에서 만난 어민과 소비자들도 불안감을 숨기지 않았다.

후쿠시마현 주민과 변호인 등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인가 취소와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다음 달 8일 후쿠시마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22일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데 이어 일본산 수산물이나 식품 등에 대한 추가 수입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 강호준 기자

### 오유경 식약처장 “수입수산물 검사, 단 한 건 빙틈도 없도록”

내부 게시판 통해 담당 공무원들 독려

오유경 식품의약안전처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수입 수산물 검사와 관련해 “단 한 건의 빙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과정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철저하게 검사해 달라”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 처장은 전날 내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국민 불안이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철저한 검사에서부터 국민 안심이 시작된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원전 주변 8개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8개현 외 지역 수산물은 수입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은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등 3단계로 이루어지며 정밀검사 단계에서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를 이용한 방사성 물질 측정이 이뤄진다.



/ 송유영 기자

### 尹 “北 미사일 분석 결과 미일과 공유…추가 도발 철저히 대비”

긴급 NSC 결과 보고 받고 지시…NSC “안보리 결의 상습 위반하는 北에 응분의 대가”



국가안보실은 2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주정 발사체 도발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한 뒤 오전 6시부터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공유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참석자들은 “주민을 기아와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경제 실정과 민생파탄의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며 그나마 없는 자원을 무모한 도발에 향진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주민을 기아와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경제 실정과 민생파탄의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며 그나마 없는 자원을 무모한 도발에 향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 촉취, 사비 해킹행위, 해상 밀수 등의 불법행위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은행권 최초』**

**밤낮없는 금융사기로부터  
빙틈없는 모니터링 시작**

A man and a woman in business attire are standing in front of the globe, each holding a smartphone and pointing at it.

**금융사기예방팀과 빅데이터, AI가 만나**

**24시간 금융사기 사전 예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이상거래 수집 확대**  
빅데이터와 AI 활용, 이상거래 추출 & 이용채널별 의심거래 정보 활용

**단말정보 범위 확대**  
모비일 단말 위험정보 수집 & PC 단말정보 수집

**대외기관 사고 공유**  
금융보안원·금융결제원·은행협회 등  
사고데이터 공유로 인식거래 추출 세분화

**NH농협은행**

## 與 “정율성 공원” 조성, 반국가적 테러…강기정 당장 사퇴하라”

“민주화의 성지” 광주를 ‘공산주의의 성지’로 만드는 짓”

국민의힘은 24일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 사업을 ‘반(反)국가적 테러’로 규정하며 강기정 광주시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테러”라며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짓밟고 자유 민주주의의 심장 광주를 육보인 강 시장은 당장 사퇴하고 국민과 광주시민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 혈세 48억원을 들여 공산주의 앞잡이, 북한 영웅의 기념공원을 짓겠다는 광주시와 관계자들은 공산주의 정신을 기리고 싶은 간접이 아니냐는 국민 비판이 뜨겁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비롯한 국민의힘 행안위원회들도 성명을 내고 “6·25 남침 전쟁범죄를 일으킨 김일성의 부역자를 기념하고 추모하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행안위원회들은 “강 시장은 더 이상 억지 를 부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이 사업의 부



23일 오전 광주 남구 양림동 정율성 생가 인근에 조성된 정율성거리에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당성과 위현성을 인정하고 사업을 백지화 해야 한다”며 “논란을 면주자고 말할 게 아니라 사업을 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끝내 ‘침략자 역사공원’을 고집한다면 지방자치 행정 전반을 다루는 행안위 차원에서도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부의장인 정우택 의원은 페이스 북에 “관광객 유치를 사업 추진 이유로 든다는데, 관광객을 유치해 돈을 벌 수 있

다면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활동한 인물까지 기념하겠다는 것인가”며 “비정상의 극치, 개탄할 일”이라고 썼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광주시가 정율성 관련 기념사업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게 기념사업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정율성에 대한 몰상식한

역사적 평가를 했고, 그 바탕 위에서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했다”고 비판했다.

이용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라면 광주시 곳곳에 걸린 태극기도 내리고 중국 공산당의 오성홍기로 바꾸겠느냐”며 “정율성 공원을 중단할 수 없다는 강 시장의 행태는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를 ‘공산주의의 성지’로 만드는 짓”이라고 비난했다.

김웅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강 시장이 김원봉·윤이상 공원이 있으니 정율성 공원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래서 만들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가 2020년 5월 동구 불로동 일대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총 48억원을 들여 연말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할 방침인 가운데, 최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율성이 1939년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고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인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장본인인 점 등을 지적하며 공원 조성 사업 철회를 요구해 논쟁이 빚어진 상태다.

/ 송원기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종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한은, 기준금리 3.5%로 5연속 동결 가계부채 잡자니 경기 부담

한국은행이 24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끝냈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원/달러 환율도 다시 오르는 등 인상 요인이 있지만, 최근 중국 부동산발(發) 리스크(위험)까지 겹쳐 경기가 더 불안해진 만큼 인상으로 소비·투자를 위축시키기 보다 일단 동결한 뒤 상황을 지켜보자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특히 오는 25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재선후 회의의 연설이 예정돼 한은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의 가장 큰 변수인 미국의 추가 긴축 의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의 의결문에서 동결 배경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 위험, 금리 인상의 과급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계속 여지를 뒀다.

금통위는 국내 경기와 관련해 “앞으로

## 해수장관 “오염수 방류, 국제사회 일원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

“수산업계 직접피해 없을 것으로 확신…尹대통령 ‘어민피해 각별히 신경’ 주문”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의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일본의 방류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이렇게 답했다.

조 장관은 ‘일본의 방류 결정에 대한 한 국 정부의 태도는 온당하다고 보느냐’는 후속 질문에는 “국제사회와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방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면 조 장관은 ‘왜 이 방류를 찬성하는 것인가’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질의에는 “정부에서 찬성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바다를 관장하는 해수부 장관으로서의 심정을 한마디로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에 “안타깝다”고 짧게 답변했다.

조 장관은 어민지원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

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그 단계를 벗어나면 수매와 비죽도 들어가야 한다. 그 뒤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같은 단계까지는 안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오늘

(24일) 오염수가 방류될 것이라고 날짜를 예측했느냐”고 묻자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윤석열 정부와 한국 여당 내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가 불가피하다면 총선에 악영향이 적도록 방류를 빨리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한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알고 있다”며 부인했다.

조 장관은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소비 위축에 따른 수산업계의 간접피해는 있어도 직접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조승환 해수부 장관

확신한다”며 “소문 피해 같은 간접피해에 대해서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에 우리 정부가 어떤 피해 등을 주산해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협의를 통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며 “간접적인 피해는 기존에 정부의 정책적인 틀 같은 부분을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 문형철 기자

소비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수출 부진도 완화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은 1.4%로 5월 전망치에 부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상승률이 8월부터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이라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치(3.5%)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은도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4%, 3.5%로 유지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의 경우 중국 경제 불확실성을 반영해 기존 2.3%에서 2.2%로 0.1포인트(p) 낮췄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p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 지난해 1·4·5·7·8·10·11월과 올해 1월까지 0.25%p씩 어덟 차례, 0.50%p 두 차례 등 모두 3.00%p 높아졌다.

하지만 금리 인상 기조는 사실상 지난 2월 동결로 깨졌고, 3.5% 기준금리가 이 날까지 약 7개월째 유지되고 있다.

/ 임성호 기자

## 고향사랑 기부제

우리 고향에 힘이 되는 법- 기부를 통한 나눔입니다

당신의 작은 기부도 농촌에는 큰 힘이 되니까

고향에 기부하고

우리 농축산물을 선물로 받으세요!



함께하는  
100년 농협

##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액의 30% 상당 달侈품 지급

지역 농축산물 및 지역 특산품 등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100%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 16.5% 공제

기부금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 시험 : 2023년 1월 1일

- 온라인 : 정부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 e음]

- 오프라인 : 농협은행·농축협

\*기부 한도액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법인 기부 제외)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 '라임 사태' 새 국면…국회의원 특혜성 환매·횡령 등 추가 적발

금감원, 3대 사모펀드 사건 재조사…“새 의혹 규명 차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태 등을 전면 재조사해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성 환매 및 수천억원 규모의 횡령 등을 추가 적발했다.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이 전 정권에서 '봐주기 의혹'이 불거졌던 3대 펀드 사건을 정조준함에 따라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인사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 새로운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펀드 자금이 투자된 회사들에서 횡령·배임 등 부정한 자금 유용도 추가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새로 적발한 내용들을 지난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검찰에 통보한 상태다.

금감원은 재조사 실시 배경과 관련해 “언론 등에서 제기한 각종 새로운 의혹을 규명하고 투자자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별로 살펴보면,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는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특혜성 환매와 2천억원대 횡령 혐의 등이 새로 적발됐다.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해 일부 유력인사들에게 환매를 해줬다.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 B 상장사(50억원), C중앙회(200억원) 등이 환매 중단 직전 투자금을 돌려받았다.

라임 펀드 투자처였던 5개 회사에서는 2천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적발됐다. 이들 회사 대표와 임원들은 투자금을 필리핀 소재 리조트를 인수하는 데 쓰거나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 카보디아 개발 사업이라는 허위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계약 내용과의 차액을 편취하기도 했다.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서도 횡령과 부정거래 행위 등이 추가로 적발됐다.

공공기관의 기금운용본부장 D씨는 전체 기금의 약 37%에 달하는 1천6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면서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1천만원을 수수했다. D씨 자녀도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투자된 특수목적법인(SPC)에서도 수십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발견됐다. 옵티머스 전 임원들의 펀드 운용 비리 등도 새롭게 드러났다.

역시 부실 운용과 불완전 판매 등으로 논란을 낳았던

디스커버리 펀드에서도 펀드 돌려막기,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등이 새롭게 밝혀졌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와 관련해 사회적 관심도가 큰 점을 감안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수사 통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조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감원이 대규모 횡령 등 추가 혐의를 통보해온 만큼 자금 용처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 등으로 번지며 정치권에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타 기업들의 전환채권(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2020년에 연달아 터진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냈던 것이 골자다. 이들 사건은 막대한 피해 규모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당시 정권·여권 핵심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번지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작년 취임 일정으로 라임·옵티머스 재조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전 정권 인사들의 개입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뒤따랐다. 한편, 금감원은 운용사의 위법 행위 등 새로운 사실 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 펀드와 옵티머스, 헤리티지 펀드 등 3개 펀드에 대해서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송진영 기자



## 배달원·대리기사 등에 소득세

### 최대 230만원 돌려준다

국세청이 배달라이더·대리기사·간병인·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모바일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4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수입금액이 7천500만원 미만(신규사업자 기준)인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강사 등이 인적용역 소득자에 해당한다.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데 이때 먼저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환급받을 수 있다.

이들이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세금은 2천220

억원에 달한다. 1인당 환급액은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230만원까지 개인 소득 등에 따라 다르다.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최근 5년간 환급 예상 세액과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세액은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환급 세액이 계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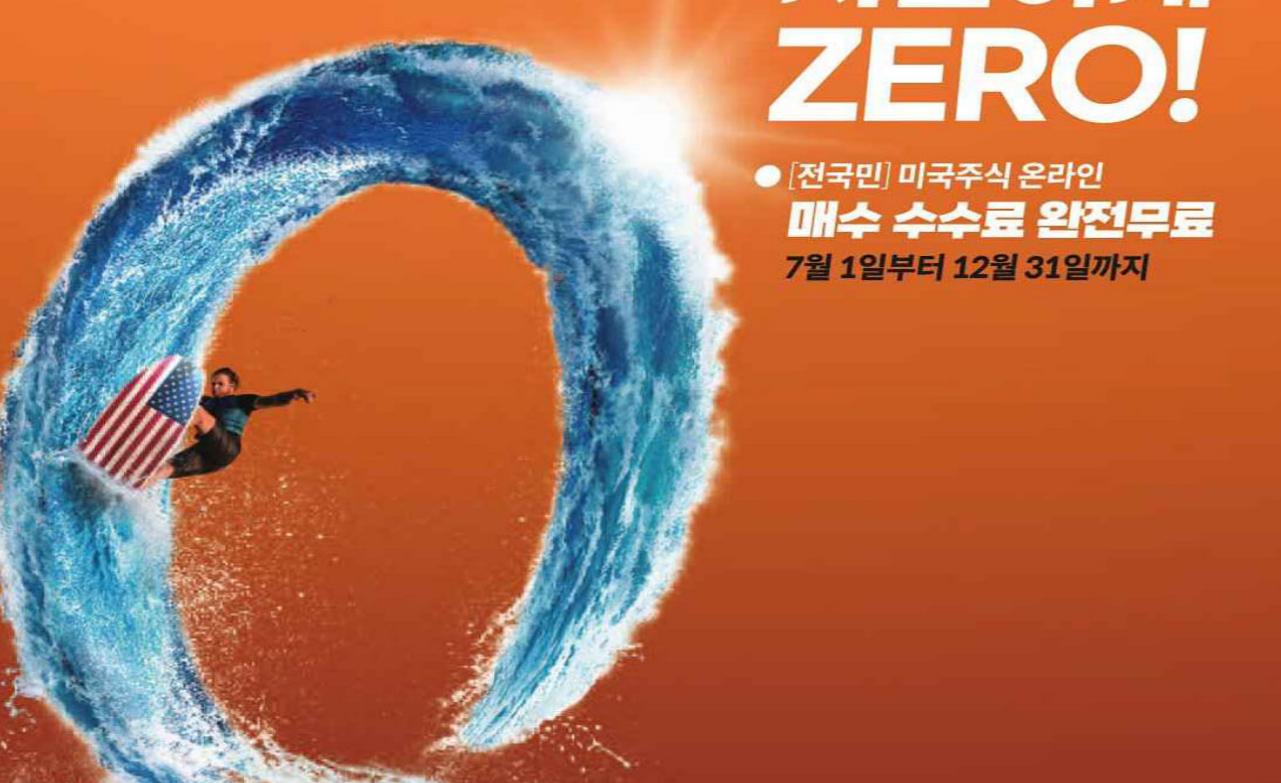
다만 소득세 환급금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했다면 각각 연도에 대해 환급 신고를 해야 한다. 환급금 수령을 원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7년까지 할 수 있지만 추석 전에 환급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소득세 환급과 관련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서 소득세과로 하면 된다.

/ 조유진 기자

**전국민 모두  
장기투자  
분산투자 하시라고  
미래에셋증권  
미국주식 온라인  
매수 수수료**  
**시원하게 ZERO!**  
**● [전국민] 미국주식 온라인  
매수 수수료 완전무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투자상담센터 1644-9300] ■ 23.07.01~23.12.31까지 미국주식 온라인 매수 수수료에 대해서만 무료(에도시에는 수수료 발생)이며, 기간 종료 후 기존 수수료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미국주식 온라인 수수료 0.25%, 오프라인 0.5%, 미국주식 매도시 체비용 0.0008% 별도발생 ■ 본 이벤트는 개인 고객에게만 해당되며 법인 고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본 이벤트는 당시 시장 또는 금융당국의 지도 및 권고에 따라 조기 출장료가 가능하며 조기 종료일 이전까지는 온라인 미국 주식 매수 수수료 면제됩니다. ■ 미래에셋증권 온라인 매체(MTS, HTS)를 활용한 미국주식 매수 시에만 해당 됩니다. ■ 투자는 금융투자상품(주식)에 대하여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주식)은 자산가격, 환율변동 등에 따른 투자 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2456호(2023.07.06~2023.12.31)

글로벌 투자 파트너 –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 법무부,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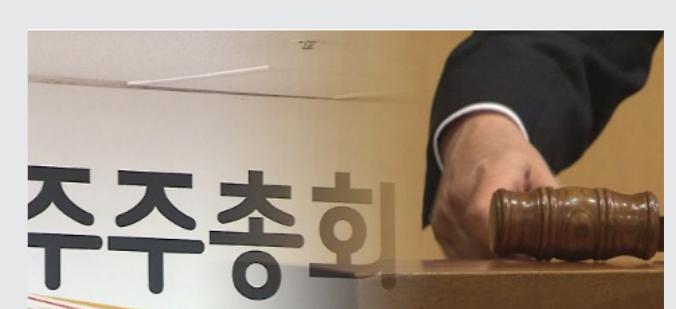
### 비상장사 물적분할시 반대 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고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비상장사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주총회 통지, 투표, 회의 등을 전자화 할 수 있다. 모든 주주가 전자적으로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와 전자적 출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가 허용된다.

비상장사는 종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 할 때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영업양수·양도 등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상장사는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물적 분할 시 같은 규정이 적용됐다.



개정안은 또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변경 효력발생일까지 회사가 신정한 매수가액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반대주주를 채권자 지위로 전환하고, 매수대금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해 주주에 통지한 매수가액 이상의 금액 공탁을 허용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폭넓게 듣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남현성 기자

## 태영호 “중국 정부 압박해 탈북민 한국행 길 열어야”

### “중국 내 탈북민 2천600명 아시안게임 후 강제북송 예상”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24일 중국 정부를 압박해 중국 내 탈북민의 한국행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공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한국으로 망명한 태 의원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세미나 개회식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금 중국에 수감된 약 2천600명의 탈북자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강제북송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정부와 통일부는 강제북송은 중국 영토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임을 명백히 밝히고 국제사회와 함께 아시안게임을 앞둔 중국 정부를 압박해 탈북민의 한국행 길을 열어주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공식이든 물밀 대화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많은 수를



데려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절어놓았던 북·중 국경의 빗장을 서서히 풀면서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북송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때문에 탈북민의 한국행이 가능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날 세미나는 태 의원과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추진 체계 개편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 발표문에서 북한 인권 관련 업무를 통일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소장은 “북한 인권, 납북자, 억류자, 이산가족, 국군포로 문제는 대표적 인권 사안이면서 남북한 인도적 협력이 필요한 업무이므로 남북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야 하는 통일부 입장에서 북한 당국과 불편한 사안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직접 관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일부와 외교부 등 관련 부처는 국제사회와 대북 및 국내 정책 차원에서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한 일관성, 지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황순길 기자

## 산업장관 후보자, 200조 한전부채에 “구조조정 필요하다 생각”

### 서울 임시집무실 첫 출근…청문회 준비·업무 본격 나서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사상 처음으로 총부채 200조 원을 넘긴 한국전력의 심각한 재무 위기 상황과 관련해 구조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해광업공단 경인지사에 마련된 임시 집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막대한 한전 부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필요한 부분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말 연결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13년 4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0

조원을 넘겼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신규 한전체 발행 등 자금 조달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며 일각에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성이 거론되고 있다.

방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로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업계에서 그런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임명이 되면 업계와 언론과 자주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방 후보자는 지난 22일 발표한 소감문에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수출 총력 증대, 첨단산업 육성과 한미일 산업 협력 강화, 원전 생태계 복원 조치 완성, 필요한 구조조정과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 철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방 후보자는 이날 출근을 시작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와 산업, 통상, 에너지 분야에 걸친 산업통상자원부 업무 파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 송원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은 원내대표 등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 이재명 “日, 인류 최악 환경재앙 선택尹 정권도 공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국제 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본은 인류 최악의 환경재앙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 “국민 생명·영토 안전” 신성한 책임 저버린 용서 못 할 정권”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일본이) 2차 세계 대전 때 총과 칼로 태평양을 유린했다면 이젠 방사능으로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사는 2023년 8월 24일을 일본이 씻지 못할 범죄를 저지른 날로 기억할 것”이라면서 “전 세계와 함께 일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정권도 환경 재앙의 또 다른 주범이라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해 오염수 문제가 없다며 대통령실 예산으로 오염수의 안전성을 확보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쯤 되면 이 정권은 일본과 핵 오염수 투기의 공범이라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국민 생명과 영토의 안전을 수호해야 하는 신성한 책임을 저버린 용서 못 할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총동원해야 한다. 피해 국민에 대한 조속하고 과감한 예산, 입법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광도훈 기자

### 원희룡 “몇 달 앞 다가온 국가적 재편서 정권교체 강화 이뤄야”

보수포럼서 與 총선승리 중요성 강조…“부동산 폭등·교통 분야 문제 문정부, 해야 할 일 안 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에서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승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보수 성향의 포럼 ‘새미준’이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대선에서) 말만 정권교체가 됐지,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정치 상황을 보면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 당협위원장 등 국민의힘 인사 5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특히 “야당의 터무니없는 공세에 맞서서 내년 (총

선에서)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여당 간판으로 국민 심판을 받는데 저도 정무적 역할을 하고 모든 힘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정권의 비정상적인 ‘내로남불’과 자기들끼리의 멱이 사슬, 대한민국을 안에서부터 파괴하는 세력들의 유타를 정상화하는 일을 해야 한다”며 “국토부가 앞장서서 윤석열 정부의 반카르텔 정상화를 합작하고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했다”며 “부동산은 폭등하고 교통 분야는 제대로 투자와 추진을 하지 않아서 문제를 쌓아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무너진 것은 부동산값 폭등 요인이 가장 커졌고, 그 과정에서 내로남불과 무능이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 후반기 주택 문제로 국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아울러 “국토부는 GTX-B 뿐 아니라 D, E, F 등도 연내 계획을 마쳐서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도 윤석열 정부 성과로서 모두 손에 잡힐 것”이라 고 덧붙였다.

/ 장명훈 기자

### 野, 대통령실 앞에서 ‘이동관 불가’ 회견…“언론 흙역사 장본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동관 씨는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 언론사에 전례 없는 흙역사를 쓴 장본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시한이다.

과방위가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 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서 윤 대통령은 25일 이후 이 후보자를 방송위원회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부적격’ 의견이 담긴 보고서 채택을 추진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과 이견으로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자 자체적으로 만든 보고서를 들고 대통령실로 향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이 보고서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회견에서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를 보내라 하고, 여당은 보고서 채택 의지를 거부하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대통령실마저 보고서 수령을 거부하니 어찌라는 건가”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동관 씨는 학교폭력 은폐, 언론 탄압, 인사청탁, 세금 탈루 같은, 단 하나로도 낙마하고 남을 초대형의 흙이 차고 넘친다”며 “(청문회에서는) 너무 명백한 물증 앞에서 ‘모른다’, ‘아니다’만 외치는 그의 뻔뻔함만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 채정호 기자

samsung

Financial Networks

## 삼성생명 안세영 선수가 전해드릴 좋은 소식

2023년 월드투어 대회 총 7번 우승으로

마침내 세계랭킹 1위에 오른 삼성생명 안세영 선수

8월에 또 한 번 뛸려줄

기분 좋은 소식을 기대해주세요

2023 덴마크 세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8/21~27] 우승을 기원합니다.

좋은 소식의 시작

삼성생명  
안세영 선수



# 푸틴의 복수?…‘등에 칼 꽂은’ 프리고진 두달만에 손봤나

## 영국 정보당국자들 “푸틴 지시 받은 FSB 소행” 추정

한때 ‘푸틴의 요리사’로 불렸던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23일(현지시간) ‘의문의 죽음’을 당하면서 두달 전 일으킨 무장반란 때문에 응징을 당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 수장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을 휘젓던 그는 지난 6월 돌연 모스크바를 향해 총구를 돌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은 ‘반역자’가 됐다.

영국 정보당국자들은 프리고진 일행이 탄 전용기 추락이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의 소행인 것으로 본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이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당연하게 푸틴이다. 우두머리로서 푸틴은 그가 당했던 굴욕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푸틴은 두 가지로 움직인다. 재능에 따른 충성심, 그리고 배신에 따른 후과”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모든 배경, 모든 습성, 모든 과거가 FSB를 지목한다”면서 “FSB는 푸틴에게 여전히 충성한다”고 덧붙였다.

영국 해외정보국(MI6) 전 국장인 리처드 디어러브도 프리고진이 탄 전용기 추락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놨다.

디어러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사고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를 것”이라며 “사고처럼 보이겠지만 의심스러운 요인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방 모든 이들이 동일한 결론에



프리고진(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를 것”이라며 “푸틴이 자신의 권력 기반에 도전한 상대에게 보복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9~2022년 모스크바에서 활동했던 영국 요원 존 포맨도 이번 사고 시점에 주목하며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그는 프리고진의 사망이 “일종의 러시아 오포파”라면서 “시점이 우연이 아니다. 프리고진이 모스크바로 돌진한 지 두 달 며칠 만에 죽음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 준비를 해왔다는 점에서 러시아 시스템의 속도가 나를 놀라게 했다”면서 “푸틴은 자신을 위협한 이들에게 복수를 할 것이며, 자신에게 맞서려는 누구에게라도 으스스한 효과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비행기 추락이라는 공개적 방식을 쓴 것에도 주목하고 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러시아에서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점과 이번 사고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을 소개했다.

무장 반란을 시도했을 때부터 프리고진의 ‘최후’가 어느 정도 예상되기는 했으나 적나라한 추락 영상이 텔레그램 등으로 삽시간에 퍼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 엘리트를 향한 경고”라고 더타임스는 진단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인 미하일로 포돌랴크는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무장 반란 두달 만에 프리고진을 공개적으로 제거한 것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푸틴이 러시아 엘리트층에게 보내는 신호”라면서 “조심해. 배신하면 죽음이야’라는 것”이라고 썼다.

다만 러시아 관영 매체 등은 프리고진

의 사망 소식을 1분 안팎의 단신으로 내

보내고 있다.

대신 이들 매체는 푸틴 대통령이 추락 사고 당시 쿠르스크 지역에서 ‘쿠르스크 전투’ 승전 80주년 기념식을 주재한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갑전으로 꼽히는 쿠르스크 전투(1943년 7~8월)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과 소련 사이에 벌어진 전투로, 소련군은 현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인 하르키우를 탈환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전투 기념관에서 연설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오늘날 싸움의 모든 짐이 우리 군인들과, 최전선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있다”고 격려했다.

또 “우리 모든 군인들은 용감하고 단호하게 싸운다”면서 “조국에 대한 현신, 군에 대한 충성이 이번 특수 군사 작전 동참자들을 단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을 전쟁이라고 부르는 대신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정하고 있다.

러시아 매체에 나온 푸틴 대통령의 모습은 ‘쾌활한’ 분위기였다고 미국 매체인 폴리티코는 해석했다.

일각에서는 프리고진의 반란과 연계됐다는 소문이 무성했던 세르게이 수로비킨 러시아 항공우주군(공군) 종사령관이 해임됐다고 22일 알려진 바로 다음 날 프리고진이 숨진 것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짚었다.

/ 최경준 기자



후쿠시마현 이와키의 어시장

## “후쿠시마산 수산물 팔겠다”

### 日유통업계 ‘소문피해’ 진화 동참

일본 대형 유통업체들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이후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대형 유통업체인 이온은 지난 22일 도쿄를 포함하는 간토 지역의 종합 슈퍼에서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후쿠시마산 물품을 팔겠다고 발표했다.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어민들의 ‘소문(풍평) 피해’를 막는 데 동참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온은 자체적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트리튬) 함유량을 측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세븐&아이 홀딩스를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팔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세븐&아이 홀딩스 산하 이토요카도는 전날 “동일본대지진으로 피해를 본 생산자를 응원할 것”이라며 후쿠시마산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대형 슈퍼 체인인 라이프와 야오코도

/ 도원중 기자

## 알프스 빙하 녹자 타임캡슐 열렸다…수십년 된 시신 속속 발견

### 스위스 이어 오스트리아서 2001년 실종된 남성 시신

유럽 알프스 산악지대에서 기후 변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수십년 전 실종된 사람들의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미국 CNN 방송은 23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이스트티롤의 슬라텐키스 빙하 지역에서 2001년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시신이 발견된 곳은 해발 약 2천900m 지점이다. 현지 등반 안내원이 우연히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시신은 헬리콥터로 옮겨졌다고 CNN은 전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2001년 스キー 장비를 소지한 채 여행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신 옆에서 발견된 배낭 속에는 현금과 은행카드,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신원을 37세 오스트리아인이라고 임정적으로 확인했다. 정확한 신원은 DNA 검사를 거쳐 몇 주 뒤에 나올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스위스 마티호른에서 이탈리아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이 남성은 2019년 3월 마티호른에서 스キー를 타다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스위스 체어마트의 테오도 빙하 일대에서 1986년 실종된 독일인 등반가의 유해가 그가 신던 등산화 및 아이젠 등과 함께 발견됐다.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대학의 빙하학자 린제이 니콜슨 박사는 지난달 CNN과의 인터뷰에서 기후 변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과거 종족이 묘연했던 물건이나 실종자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한



30년전 실종된 알프스 등산객 빙하에서 발견(2017.8.3)

다고 말했다. 그는 “빙하가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씩 녹고 있다”며 최근 강설량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후변화 억제를 위한 야심에 찬 목표를 달성한다 해도 이번 세기말에는 세계적으로 빙하의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CNN은 전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이번에 시신이 발견된 슬라텐키스에서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무려 60~100m가량 빙하가 사라졌다. 니콜슨 박사는 “지금처럼 우리가 계속 배기ガ스를 방출한다면 다가올 세대는 대부분 지역에서 빙하가 사라진 알프스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매우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 오종훈 기자

## 세타 태국 신임 총리 “앞으로 4년은 변화의 시간 될 것”

### 국왕 승인 받아 임기 시작…“태국, 중요한 전환점에 있어”

세타 태위신 태국 신임 총리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세타 총리는 전날 오후 6시 방콕 프아타이당 당사에서 태국 제30대 총리로 임명하는 왕실 명령을 받은 뒤 태국의 통합, 위기 해결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4년 임기의 총리로 임명된 후 첫 연설에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일하겠다”며 “지금부터 4년은 변화의 4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국은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며 “경제, 사회, 안보,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기를 맞고 있고 긴급한 해결책이 필요

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거시경제와 가계의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고, 국가 행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하며,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세타 총리는 “지칠 줄 모르고 일하겠다”며 “프아타이당 정부는 태국이 모든 국민에게 행복의 땅, 다음 세대에게는 희망의 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타는 지난 22일 의회 투표에서 총리로 선출됐다. 5월 총선에서 제2당이 된 타신 친나와 전 총리 계열의 프아타이당은 제1당 전진당(MFP)을 배제하고 군부 보수 진영과 연대해 집권에 성공했다.

/ 박형오 기자

**국민건강 보험이 지원하는 금연치료**

**금연치료, 지금 시작하세요!**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하는 금연치료, 지금!**

- 혼자하는 금연보다 금연성공률 6배 UP!
- 금연치료 완료하면 진료비도 전액 환급!

금연치료지원 상담전화 **1577-1000**

공단App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까운 병·의원 찾기

금연치료 전문가인  
의사선생님께  
진료

금연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  
니코틴 보조제 처방

이수조건 충족시  
본인 부담금  
전액 환급

Bokjeonbiji 보건복지부  
Korea Health Insurance 국민건강보험

# K-거대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공개…“네이버 미래 먹거리”

최수연 “하이퍼클로바X로 세상 변화…사용자·판매자·창작자·파트너사 동반성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가 24일 향후 플래그십이자 신수종 사업으로서 자사의 명운을 건 한국형 거대언어모델(LLM)인 공지능(AI)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했다.

네이버는 오픈AI의 챗GPT가 불러온 전 세계적 생성형 AI 열풍에 맞서 하이퍼클로바X를 자사의 미래를 책임질 비즈니스 모델로 선정하고 한국적인 LLM 개발에 힘써왔다. 하이퍼클로바X는 네이버가 2021년 공개한 ‘하이퍼클로바’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한국어에 최적화한 LLM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24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팀 네이버 콘퍼런스 단 23’에서 ‘하이퍼클로바X’를 소개하며 “생성형 AI라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하이퍼클로바X 개발을 위해 영업수익의 22%를 연구개발(R&D)에 꾸준히 투자했으며, 이를 토대로 기술을 고도화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소개했다. 자체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도 한몫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네이버가 “다양한 AI 기반의 추천 기술을 검색을 포함해 쇼핑, 예약, 리뷰, UGC(사용자 제작 콘텐츠), 지도, 동영상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하며 기술을 고도화하고 사용성을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생성형 AI와 이에 기반하는 다양한 기술 프로젝트들의 중심에는 사용자, 판매자, 창작자의 경쟁력 향상에 있다”며 “네이버의 경쟁력은 다양한 서비스와 파트너들이 서로 연결되어 성장을 이끌고, 이는 다시 플랫폼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위닝루프’ 구조에 있다. ‘하이퍼클로바X’는 이러한 위닝루프를 더욱 가속화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하이퍼클로바X와 함께 이를 기반으로 한 대화형 AI 서비스 ‘클로바X’, 생성형 AI 검색 ‘큐(CUE)’도 선보였다.

이날 베타 테스트를 시작하는 클로바X는 창작, 요약, 추론, 번역, 코딩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

적인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다음 달 중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 최 대표는 네이버의 생성형 AI 프로젝트들과 이를 적용한 검색, 커머스, 광고 등 네이버 주요 서비스들의 변화도 공개했다. 생성형 AI를 이용해 판매자들이 사업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

## 대화형 AI ‘클로바X’·AI 검색 ‘큐’도 함께 선보여

스로, 질문과 답변이 연달아 이어지는 ‘멀티 텁’ 대화도 가능하다.

특히 클로바X에는 네이버 내·외부의 다양한 서비스 API를 연결하는 시스템 ‘스킬(skill)’ 기능을 도입해 언어 모델 자체의 생성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답변을 보완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하는 향상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큐:는 복합적인 의도가 포함된 복잡하고 긴 질의를 이해하고 답변 생성에 필요 한 신뢰도 있는 최신 정보를 활용해 입체

술을 비롯해 창작자에게 새로운 콘텐츠 제작 경험을 제공하는 글쓰기 도구 ‘클로바 포 라이팅’(CLOVA for Writing), 광고 주를 위한 생성형 AI 기반의 광고 상품인 ‘클로바 포 AD’(CLOVA for AD) 등 네이버 서비스 곳곳에 생성형 AI가 빠르게 적용될 예정이다.

최 대표는 “네이버와 함께하는 판매자, 창작자, 그리고 파트너사가 다양성을 지키며 성장할 수 있도록 강력한 기술과 서비스로 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희재 기자



우주 강국 향한 누리호 3차 발사

## “누리호 발사 현장 가보자” 국립과학관, 견학 프로그램 운영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현장을 직접 둘러볼 과학탐사 기회가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속 국립과학관들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함께 하는 나로우주센터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평상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통제동, 보관동, 발사대 등 누리호 발사 관련 시설물을 공개하는 것으로, 학부모

첫 프로그램은 국립과학관이 시작하며, 다음 달 2~3일 나로우주센터 곳곳을 직접 살펴보고, 항우연 연구자에게 강연을 들을 기회를 제공한다.

청소년은 신진 연구자를 만나 진로에 대해 직접 물어볼 수 있고, 학부모에게는 자녀 진로 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최신 교육 개념을 소개하는 시간도 주어진다.

국립중앙과학관은 다음 달 26일 열리는 제44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 대회 시상식과 연계한 캠프를 연다.

수상자 중 40명을 선정해 25일에는 견학을, 26일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하는 진로 멘토링을 진행한다.

국립광주과학관은 로켓을 주제로 10월 28~29일 ‘우주탐사 과학캠프’를 운영한다. 첫날에는 부분월식 우주쇼를 관측하고 둘째 날에는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한다.

국립부산과학관은 가족형 1박 2일 진로캠프 ‘과학나들 e: 우주과학편’을 11월 18~19일 열고 나로우주센터 견학과, 가족 미션 철린지, 캠워싱 지상국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각 국립과학관 홈페이지에서 보면 된다.

/ 노승만 기자

## TK통합신공항내 민간공항 2030년 개항 목표…총사업비 2.6조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전국 생산유발효과 5.1조원·고용 3만7천여명”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는 민간·군 복합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가운데 민간공항 건설에 2조6천억원가량으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내 민간공항 관련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K-2군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옮기는 국내 최초의 민간·군 통합 이전 사업이다.

이 가운데 민간공항 부문 사업비는 2조 5천768억원으로 산출됐다. 군공항을 포함한 총 사업비 약 11조4천억원의 22.6% 수준이다.

활주로와 계류장 등을 포함한 ‘에어아이드’에 2천617억원(10%), 여객터미널과

급유시설 등 ‘랜드사이트’에 1조4천25억 원(55%), 부지 조성에 5천187억원(20%), 접근도로 건설에 3천939억원(15%)이 소

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민간공항의 부지는 92만m<sup>2</sup>로, 전체 공항 면적(1천780만m<sup>2</sup>)의 약 5%를 차지한다.

각 시설의 규모는 여객터미널 10만2

천m<sup>2</sup>, 화물터미널 1만m<sup>2</sup>, 계류장 29만6천

m<sup>2</sup>, 활주로 3천500m, 확장을 위한 여유

부지 22만6천m<sup>2</sup>로 검토하고 있다.

공항 개항 30년 이후인 2060년 기준 항

공 수요는 여객 1천226만명(국제선 906

만명, 국내선 320만명), 화물 21만8천t(국

제 21만3천589t, 국내 4천655t) 수준으로

예측됐다. 국토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2026년 7월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착

공해 2030년 12월 개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군 공항과 함께 진행되는

만큼 구체적인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민간공항 건설로 전국에 약 5

조1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7천여명

의 고용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대구·경북(TK) 지역에는 약 3조 5천억원(전체의 68.4%)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여명의 고용(82%)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민간공항 사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군공항 시설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는 최종 확정안이 아니며, 이후 사업 적정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과정에서 더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대구·경북 및 공항 전문가 자문단 등과 함께 개략적인 공항 건설 계획을 마련했다.

조만간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을 출범하고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ETA) 면제를 신청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사업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 신지호 기자

## 루이비통家 며느리가 만든 브랜드 ‘데스트리’, 롯데百서 만난다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는 패션 스타일로 최근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데스트리는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를 이끄는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의 며느리로도 잘 알려진 디자이너 제랄딘 구이엇과 크리스찬디올의 임원을 지난 레티시아 롬브로소가 2016년 만든 브랜드다. 모자로 시작해 가방과 주얼리, 여성 의류 등으로 제품을 확대하고 있다.

내국에서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HDC그룹 정몽규 회장의 장남 정준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결혼식 때 데스트리의 ‘건터 파스망트리 백’을 들고 하객으로 참석해 입소문을 냈다.

팝업은 10월 31일까지 열리며 건터 파스망트리 백 외에도 다양한 가방과 액세서리, 의류를 만날 수 있다.

/ 이지현 기자

‘올드메리너’는 눈에 띠는 브랜드나 로고를 배제하고 은근한

## 시대를 앞서 가는 시선

앞만 바라보는 것이  
시대를 앞서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큰 그림을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한화생명의 시선은  
모든 방향으로 향합니다

한화생명



www.hanwhalife.com

## 성남시-5개 병원-의학단체, '정신질환자 치료관리 강화' 협약

사법입원제 도입 관련 토론회도…“지역사회 협력 예방조치 필요”

경기 성남시는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남지역 5개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협의회와 24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전영태 분당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 김태곤 분당차병원 진료부원장, 나화영 분당제생병원장, 김진국 휴엔 병원 진료원장, 김재민 성남사랑의병원장, 최재호 성남시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협의회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7개 기관·병원·단체는 ▲ 활성화 ▲ 중증질환자 치료 유지와 지속 치료 중단 사각지대 고위험 대상자 발굴과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의료기관 연계



관리를 위한 협약 ▲ 정신 건강사업과 관련한 자문·협조 등을 하게 된다.

협약식 후엔 시청 회의실에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지원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권준수 서울대학교 대

학원 뇌인지과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해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 의사가 주제 발표한 '정신질환자 관리지원 및 사법입원제'에 관해 3명의 패널이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가가 종종 정신질환자의 격리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사법입원제 도입과 관련한 참석자들의 의견도 개진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지역사회가 협력해 격리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찾아 시행해야 한다"며 사법입원제 도입 주장에 힘을 실었다.

/ 이찬우 기자



감자 캐리 가요

## 경기도 도시농부 50만 시대 “최소한의 식량자급 모델로”

경기도 도시지역에서 농업 활동을 하는 도시농업 참여자가 50만명 이상인 가운데 지자체가 도시농업을 지원해 최소한의 식량자급을 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Ⅱ'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시농업은 도시지역 옥상, 베란다, 골목길, 시민농장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여가 또는 체험적인 농사를 말한다. 농촌에서 생계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농업과는 구별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도시농업 텃밭 면적은 1천12만9천㎡, 참여자는 174만명이다.

이 중 경기도 텃밭 면적은 258만9천㎡(축구장 362개 면적), 참여자는 51만3천명이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수도권 내 도시농

업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 4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도시농업 과제와 대안을 모색했다.

조사 결과, 현장에서 중점 고려할 도시농업의 목적 또는 가치로 공동체(56%), 친환경(24%), 도농 상생(16%) 등의 순으로 꼽았다.

경기도 공영 도시농업농장의 운영에 대해서는 4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미래에 중요도에 대해서는 91%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앞으로 도시농업 활동의 전망에 대해서는 62%는 증가할 것이라고, 24%는 현 상태로 유지, 13%는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 도시농업공원의 토양탄소(토양에 탄소를 저장해 탄소중립 기여) 모델 개발, 도시농업 거버넌스 활성화와 시민사회 활동 지원, 지속 관심과 투자 등을 제시했다.

/ 최용민 기자

## 인천발 KTX 내년 정부 예산안 반영…2025년 개통 청신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발 KTX 건설 사업비를 반영하기로 하자 인천에서는 2025년 개통 목표 달성을 청신호가 켜졌다며 반겼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발 KTX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천시당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들도 그동안 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과 적극 협의해 인천발 KTX 예산 증액과 2025년 6월 개통 결정을 환영했다.

인천시는 공식입장을 통해 "인천발 KTX 건설 사업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과한 만큼 인천시는 시민이 염원하는 이 사업 예산 확보와 기반시설 구축에 경각심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발 KTX는 경기 화성 어천에서 수인선과 KTX 경부선 사이 3.19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2020년 12월 공사가

시작됐고 총사업비는 국비 4천238억원이다.

현재는 인천에서 출발하는 KTX가 없지만 인천발 KTX 사업이 완료되면 수인선 송도역에서 KTX 이용시 부산까지는 2시간 20분, 목포까지는 2시간 10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코레일은 2025년 개통 예정인 인천발 KTX에 투입할 신규 고속열차를 발주했으며 이 중 2편성(16량)이 올해 하반기 시운전을 마치고 연말까지 납품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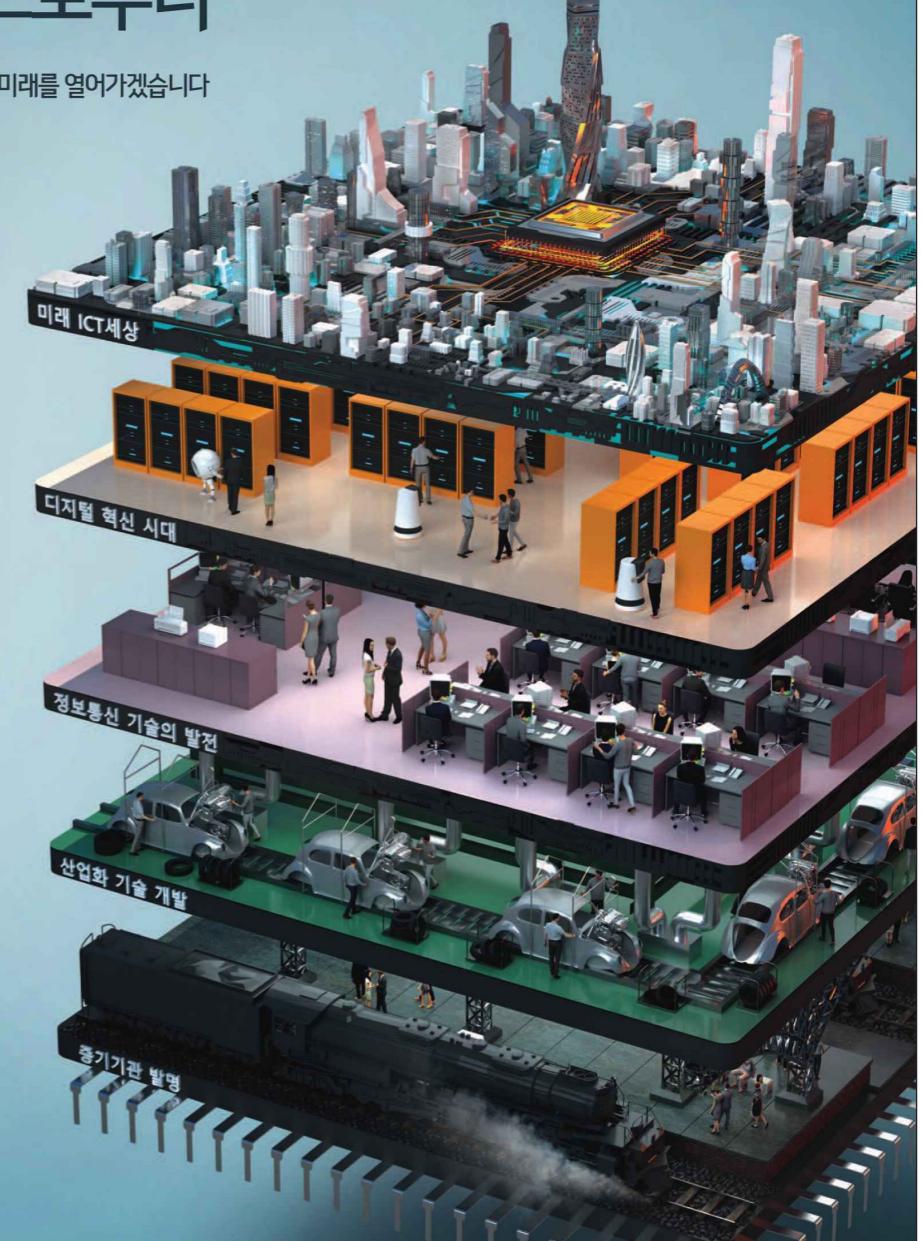
앞서 코레일은 2021년 이사회에서 인천발 KTX에 신규 발주 열차 2편성(16량)과 기존 열차 1편성(8량) 등 총 5편성(40량)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 손준성 기자



## 문명의 진보는 기술의 혁신으로부터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기술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 서울시, 여성 300명에게 난자동결 시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손해보험협회와 '40억원 기부' 협약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여성 300명에게 난자동결 시술비용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사업'은 올해 3월 발표한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지금은 아니더라도 추후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가임기 여성들 위에 마련됐다.

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에 따르면 미혼여성의 69.8%, 기혼 여성의 64.0%가 난자 보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난자동결 시술은 회당 250만~500만원이 들며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아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임신과 출산을 염두에 여성에게 난자체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와 시술비용의 50%(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보관료, 입원료, 난자체취와 상관없는 검사비는 제외된다.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한 지 6개월이 지난 20~49세 여성 300명이다. 이중 서울시가 지원하는 150명의 경우 소득 수준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며 손해보험협회가 지원하는 나머지 150

/ 김유정 기자

# 부산시, 해수·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결과 매일 공개

특별 단속 결과 56건 위반 사례 적발, 단속 강화키로

부산시는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연안 해수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 16개인 연안 해수 감시 장비를 연말까지 20개로 늘리고 방사능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시 시민에게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정부 기관과 부산시 산하 기관이 가동 중인 수산물 방사능 정밀검사 장비를 25개에서 연말까지 27개로 늘리고 내년에 1개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관련 장비



수산물 방사능 신속 검사

를 확충한다.

상이 반입되는 부산공동어시장, 대대위

포장장, 자갈치시장에서는 매일 신속검사

부산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80%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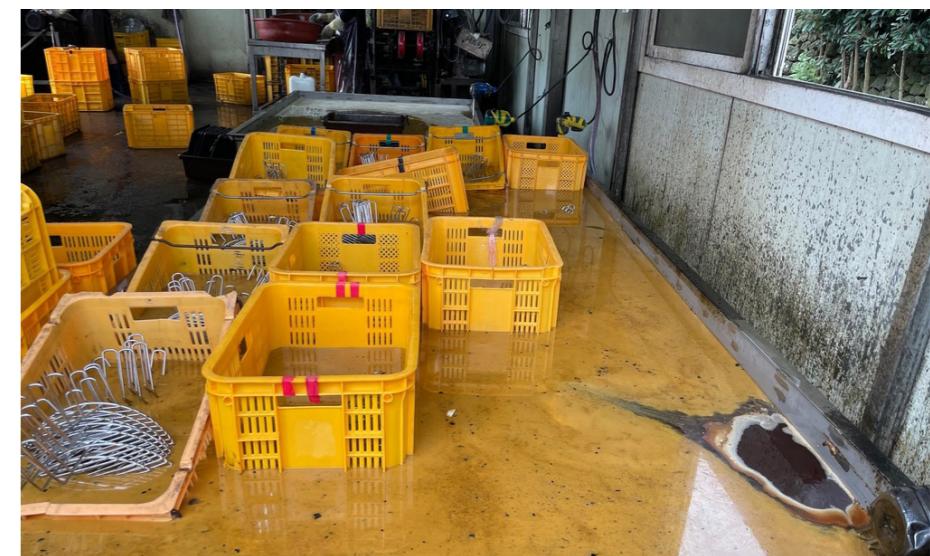
내년에 1개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관련 장비

장비로 방사능 검사를 할 계획이다. 이 3곳 수산물에 대해서는 3주 단위로 정밀검사도 실시한다.

시는 또 노점상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5천793곳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모두 5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은 “연안 해수와 부산으로 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이중 삼중으로 감시하기 때문에 유통되는 수산물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면서 “방사능 검사 결과 등 종합 상황을 매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임성준 기자



자치경찰에 적발된 고기불판 세척업체 현장

## 중금속 함유 폐수 수천t 무단방류한 고기불판 세척업체들

고기불판을 세척한 뒤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여과 없이 그대로 하수구로 흘려보낸 세척업체들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고기불판 전문 세척업체 3곳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불판 세척 후 구리 등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한 폐수 수천t을 여과 시설 등 처리 과정 없이 상습적으로 하

수구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는 금속연마제 등이 부착된 불판세척기를 설치한 뒤 내고깃집에서

개당 600~700원의 세척 비용을 받고 불

판을 수거해 세척하면서 폐수를 처리 없이 하수구에 방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적발된 사업장에서 채취한 오염

수를 성분·수질검사 의뢰한 결과 3곳 모

두에서 사람 건강이나 동식물 생육에 위

해를 줄 수 있는 구리, 납 등 특정수질유

해물질이 검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시간당 100t 이상)은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불판 세척업은 인허가 대상이 아닌 자유업이라 지도·점검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자치경찰단은 전했다.

자치경찰단은 불판 세척 과정에서 나오는 중금속 물질과 각종 오염물질이 폐수 처리시설 없이 그대로 하수구로 방류돼 식수원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의심 사업장에 대해 추적조사를 벌여왔으며, 제주시와 함동 단속으로 이들 업체를 적발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입건된 사업장별 구체적인 범죄 기간과 수의 등을 확인 중”이라며 “제주시청과 협력해 유사 업종에 대한 추가 점검을 검토하고, 향후에도 도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불법 폐수 배출 사범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차민우 기자

## 유엔인권위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방해에 심각한 우려”

对외교부 서한서 지적…건축주측 “유엔 공식서한은 희망”



민들이 내건 현수막에 ‘대현동에 탈락이 있다’거나, 여기가 너희 나라나, 우리 주민에게 위협을 면줘라’, ‘유럽처럼 무슬림이 봄비다면 이 지역은 슬럼화되고 치안이 악화된다’ 등이 적혔다는 점을 언급했다.

유엔인권위는 이슬람 사원 건설이 부당하게 방해받지 않도록 취한 조치, 대현동 무슬림들의 종교적 자유 등을 존중해 주기 위해 취한 조치, 특정 종교에 대한 비하나 부정적 편견에 대처하기 위해 취한 조치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배광식 북구청장은 “그동안 사원 건축주 측과 지역 주민들 간의 중재를 위해 해왔던 노력을 정리해 외교부에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엔인권위는 60일 이내로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 기간이 지나면 공식 서한과 한국 정부의 답변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중단하는 주

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임시 조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유엔인권위는 이슬람 사원 건설이 부당하게 방해받지 않도록 취한 조치, 대현동 무슬림들의 종교적 자유 등을 존중해 주기 위해 취한 조치, 특정 종교에 대한 비하나 부정적 편견에 대처하기 위해 취한 조치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배광식 북구청장은 “그동안 사원 건축주 측과 지역 주민들 간의 중재를 위해 해왔던 노력을 정리해 외교부에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슬람 건축주 측은 “유엔인권위의 공식 서한은 우리에게 희망이다”라며 “구청은 법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동안 공사가 지연 돼서 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힘들었다”고 환영했다. / 송유영 기자

## 울주군, 대학생 1천51명 장학금 지원…내년부터 수혜 범위 확대

올해 8년째, 울주에서 1년 이상 거주자 대상 총 8억원 지급

울산시 울주군은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023년 대학생 장학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올해로 8년째인 울주군 대학생 장학사업은 울주군 전체 읍·면을 대상으로 총 8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일반 장학생은 1인당 70만원씩 971명, 복지 장학생은 1인당 150만원씩 80명 등 총 1천51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장학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고일 기준(2023년 8월 17일) 학생 본인이나 부 또는 모가 울주군에 현재까지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올해 1학기 성적 기준으로 일반 장학생은 2.5 학점 이상, 복지

장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학생 본인의 심한 장애)은 2.0 학점 이상을 받은 학생 중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신청 희망 학생은 울주군청 홈페이지 내 장학금 접수 페이지(www.ulju.usan.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울주군은 인터넷 접수로 1차 합격자 선정 후 10월 2차 서류심사를 거쳐 11월 17일 최종 선발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울주군은 내년도 대학생 장학사업부터 격년 신청제를 도입해 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 박형민 기자

## 20층 이상 고층 화재 대응

### 창원시, 70m 굴절사다리차 도입



경남 창원시는 20층 이상 고층아파트 화재에 대응하는 굴절 사다리차를 하반기 에 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창원시는 25억6천만원을 들여 70m 굴절 사다리차, 28m 굴절 사다리차 1대씩 과 구급차 3대, 응급 구급차 1대를 구매했다.

70m 굴절 사다리차는 아파트 기준 23 층 높이까지 접근할 수 있다.

창원시는 아파트 기준 18층 높이까지

다다를 수 있는 53m 굴절 사다리차밖에 보유하지 않아 고층 건물 화재 대응에 한 계가 있었다.

창원시는 고층 아파트 단지가 많은 의창소방서에 70m 굴절사다리차를, 용원 119안전센터에 28m 굴절사다리차를, 감염병 환자 이송용 응급구급차는 대원119 안전센터에, 신규 구급차는 신월·중앙·동

읍 119안전센터에 각각 배치한다.

/ 권정석 기자

## 제주 올레길·둘레길 ‘기마 순찰’ “흉악범죄 불안 해소”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올레길과 한라산 둘레길 등에서 자치경찰기마대 특별 치안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련해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경찰기마대는 휴대전화 송수신 불량 구간이 포함된 범죄 취약지와 치안 사각지대를 선정해 지난 21일부터 올레 14-1코스(제지예술정보화마을~오설록 녹차밭), 한라산 둘레길 7구간(사려니숲길 다중 밀집지역), 8구간(질물자연휴양림 일대), 9구간(한라생태숲 일대) 등에서 기마 순찰을 하고 있다.

기마대는 가시적인 방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말을 활용해 치안 활동을 펼치며 순찰 중 범죄 취약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여부와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장소 등도 파악해 관련 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 관광객에게 지리를 안내하는 활동도 함께 한다. / 오은주 기자

광고 문의 : 1533-1545

## 포항제철소 1기 종합준공 50주년

# 철강과 함께한 50년 미래소재와 함께할 100년

지난 50년간 철강으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 온 포스코를 앞으로는 친환경 미래소재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Green Tomorrow, With POSCO

포스코그룹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충남도, 원자력연과 대응 TF 구성

### 환경정화운반선에도 해수 검사 장비…결과 누리집·전광판에 공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충남도가 한국원자력연 구원과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선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4일 충남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도는 우선 해양수산국장을 TF 단장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 충남연구원과 함께 수산물 안전, 어업인 지원, 수산물 유통관 리, 급식시설 식재료 관리 등에 나선다.

현재 어업지도선에만 있는 실시간 해 수 방사능 측정기를 환경정화운반선에 도 추가 설치해 도서 지역까지 감시 구역 을 확대한다.

대천해수욕장과 만리포해수욕장 등 2 곳은 부산대 방사능 조사센터에 분석 의



김태흠 충남지사

로해 매주 분석하고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다른 해수욕장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께 안전 상황을 분석한다.

수산자원연구소 방사능 검사장비를 통 해 수산물 전 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도 한다.

수산물 유통단계에서도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과 학교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정밀 검사를 강화한다.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위해 해수·해수 욕장·수산물·유통식품 등에 대한 검사 결과를 누리집과 시군 전광판에 공개된

다.

비과학적인 가짜뉴스에도 엄정 대응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사실상 영향이 미미하다고 해도 국민이 불안해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며 “불안감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기피하면 어민과 수산업계가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산물 소비와 가격 동향을 지속해 관리하고, 그런데도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중앙정부에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나아가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 피해 지원 대책을 요구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 곽진수 기자



의산 미륵사지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공연

### 빛으로 수놓는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아트페스티벌, 내달 9일 개막



미디어아트 페스티벌로 암도적인 미디어아트 쇼를 상시 선보일 예정이다.

동탑과 서탑 사이에 대형 스크린과 고 해상도 프로젝터, 음향으로 표현되는 미 디어아트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디지털로 새롭게 경험할 기회를 제 공한다.

특히 이 축제의 시그니처로 자리 잡은 드론 라이트 쇼가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어 개막식과 추석 연휴, 주말 등에 공연된다. 또 익산시립무용단 25명이 출연해 무 왕과 선화공주의 사랑, 백제의 평화를 품 겸 있는 무용으로 표현하는 융복합 미디어 쇼도 백미다.

매주 토, 일요일 2회씩 진행하는 융복합 미디어 쇼, 미륵사지 동선 내 자리 잡은 다양하고 경이로운 야간 경관, 박물관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체험행사, 프리마켓 등이 미륵사지 18만m<sup>2</sup>(6만평) 대지 위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 진성훈 기자

## 전대 충주병원 노조 “교수가 간호사에 성희롱·폭언”

### 병원 측 “고충처리위 조사 진행…해결 노력 펼쳐 유감”

건국대 충주병원 노동조합이 이 병원 교수가 간호사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폭언을 자행했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23일 충주시 교현동 병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 교수를 지난해 6월부터 진료 과정에서 간호사에게 폭언을 일삼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A 교수가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이쪽이지”라고 말하며 간호사의 꼬리뼈를 만졌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측은 피해자들이 지난 5월 말부터 피해 호소에 나서면서 이 문제가 공론화 됐지만 병원 측은 해당 교수를 감싸며 사건을 조용히 종결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정신적 치료를 받는 상태로, 병원 측은 이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분리하고, 노동부 감독관의 지도 아래 공정한 재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6월과 7월 1·2차 고충처리위원회와

노사 동수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가 꾸

려져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교수의 폭언이 인정돼 사과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3~4차례 어깨 및 꼬리뼈 부분 접촉이 있었다는 간호사의 주장과 달리 해당 교수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병원 측은 또 간호사들이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거부해 유급 휴가 등으로 업무 배제를 한 상태로, 이러한 사건 해결 노력이 (노조에 의해) 펼쳐진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 송진영 기자

전북 익산 미륵사지의 밤하늘이 9월 한 달간 빛의 향연을 펼친다.

익산시는 문화재청, 전북도와 함께 ‘2023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을 9월9일부터 10월9일까지 연다고 23 일 밝혔다.

3회째인 올해는 ‘용화세계, 백제인 익산’을 주제로 미륵사지 일대와 익산박물관을 시간의 빛, 기억의 빛, 낭만의 빛, 영원의 빛, 추억의 빛 테마로 꾸며 야간 여행으로 운영된다.

시는 매일 오후 7시 30분 미륵사지 석

탑 무대를 배경으로 최신기술을 접목한

/ 진성훈 기자

## 당진시, SK렌터카와 손잡고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도전



당진시-SK렌터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업무협약

충남 당진시가 SK렌터카와 손잡고 올해 하반기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도전에 나선다.

당진시는 24일 시청 해나루홀에서 오성환 시장과 황일문 SK렌터카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했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의 한 종류로 지역에 투자하려는 앵커(선도) 기업 주도로 상업과 산업, 연구 등이 복합된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송아읍 일대에 SK렌터카가 추진 중인 자동차 복합물류단지 조성과 연계해 충남 대표 주력산업이자 기간 산업인 자동차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와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진시와 SK렌터카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사전 컨설팅을 받아 충남연구원 당진시 협력단과 함께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관련 기관·기업 참여를 추진해 왔다.

/ 권도준 기자

## 원주시, 지역 6개 대학과 손잡고 더 큰 원주 만들기 나선다

### 관·학 상생발전 위해 역량 결집…9월부터 실무협의체 가동



강원 원주시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 내 6개 대학과 손을 잡았다.

시는 23일 오후 3시 30분 시청 투자상담실에서 상지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한라대학교, 경동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와 업무협약을 했다.

시와 대학들이 공동으로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더 큰 원주를

만들기 위해서다.

시는 관·학 상호 협력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하고 대학별 제시된 사업안의 부서별 검토·연계 및 중앙부처 대상 제안 공모 시 공동 추진을 지원한다.

지역 6개 대학은 인적 자원을 활용해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및 사업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제시한다.

이날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9월부터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6개 대학이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제안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협약이 더 큰 원주를 만들어 나가는 마중물이 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강희성 기자

**KB금융그룹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 개울리자

손 하나 까딱 만해도  
자동으로 끝!

자동으로 미세하여 수익으로 돌아주는  
**KB증권 예수금 자동 저금통**

투자를 끝까  
**끼비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신사법 제25-02100호(2023.06.12~2024.06.11)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시로부터 충분한 생활수준을 갖기 위하여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안내문을 반드시 양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 자산 기간 베풀, 현금 변동, 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증권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는 반드시 투자상품의 특성과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같은 방법이나 신용 등급(AA+, 2023.05.28. 한국증권평가원)의 원금 100%를 초과되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자본증권은 흥미자본증권은 흥미자본증권 구입금액 10%으로 투자증권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MA 금융은 투자증권에 투자해 투자금

**KB증권**

**SAMSUNG**

# Galaxy Z Fold5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of a woman with short dark hair, wearing a black turtleneck sweater. She is holding a Samsung Galaxy Z Fold5 smartphone in her left hand, which is open to show its large screen. The screen displays a red line drawing of a modern building's interior. In her right hand, she holds a black stylus pen, pointing it upwards. The background is plain white.

**samsung.com**

\*이해를 돋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일부 앱에서는 멀티태스킹 기능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펜 Fold 에디션은 별도 판매이며, S펜 Fold 에디션은 Galaxy Z Fold5, Z Fold4, Z Fold3에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제품 정보는  
삼성닷컴에서 확인하세요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11**

## BIFF, '한국영화의 오늘'에 '독전2' 등 3편 선정

'온 스크린' 섹션엔 한국 5편·인도네시아 작품 1편 선봬

부산국제영화제(BIFF) 사무국은 10월 개막하는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램 중 '한국영화의 오늘 - 스페셜 프리미어'와 '온 스크린'에서 선보일 작품을 24일 공개했다.

'한국영화의 오늘' 섹션의 경우 '독전2'(백감독), '발레리나'(이충현), '화란'(김창훈) 3개 작품이 선정됐다.

'온 스크린'에서 선보일 작품은 '거래'(이정곤, 웨이브), '러닝메이트'(한진원, 티빙), '비질란테'최정열, 디즈니 플러스), '시가렛 걸'(카밀라 앤디니·이파 이스판샤, 넷플릭스), '운수 오진 날'(필감성, 티빙), 'LTNS'(임대형·전고운, 티빙) 등 6편이다.

이번 영화제에서 전 세계 최초 공개되



'독전 2' 스틸컷

는 '독전 2'는 2018년 개봉해 520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독전' 후속작이다.

이충현 감독의 '발레리나'는 억울하게

죽은 친구의 복수를 위해 경호원 출신의 주인공이 펼치는 복수극을 담은 작품이다.

이충현 감독의 '발레리나'는 억울하게

제76회 칸영화제 주목할만한시선에 공식 초청된 '화란'은 새로운 유형의 한국형 누아르로 김창훈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자 신예 흥사빈의 몰입감 높은 연기와 송중기의 새로운 도전으로 기대를 모은다.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작품을 소개하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온 스크린' 섹션은 아시아 영화제 중 최초로 2021년 신설됐다.

올해 이 부문에서는 '거래' 등 한국 작품 5편과 인도네시아 작품 '시가렛 걸' 1편이 선정돼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된다.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는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영화의전당 일대에서 열린다.

/ 이영민 기자

## 에버랜드, 중국과 푸바오 귀환 협의 시작…“구체적 계획은 아직”

정동희 동물원장 “중국서 답변은 못받아…내년 2~4월 귀환 예상”

에버랜드가 중국 측과 사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귀환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정동희 에버랜드 동물원장은 24일 판다월드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판다 관련 중국과의 협약에 귀환 시점은 ‘만 4세 이전’으로 돼 있다”며 “푸바오가 세 번째 생일을 맞은 지난달부터 중국 측과 귀환 협의를 시작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받진 못했다”고 말했다.

에버랜드 동물원이 푸바오 귀환에 대해 협의하는 대상은 중국 내 애생동물 관리와 정책을 담당하는 ‘중국야생동물보호협회’, 에버랜드의 판다 연구 파트너인 중국 ‘사이언트판다보존연구센터’ 등이다.

정 원장은 “푸바오 귀환 시점은 과거 러바오와 아이

바오가 3월에 국내로 온 사례가 있고, 5~7월은 다소 덥기 때문에 3월 전후인 2~4월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판다 할아버지로도 유명한 강철원 사육사도 함께했다.

강 사육사는 “푸바오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언젠간 이별해야 한다는 것을 의식 알고 있었고, 푸바오를 위해서는 중국으로 보내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어서 크게 서운하지는 않다”며 “푸바오를 중국으로 보내더라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에버랜드는 건강하게 여름을 낸 러바오와 푸바오에게 열린 놀잇감 한상 세트를 선물했다.

한상 세트는 판다 부녀가 평소 즐겨 먹는 당근, 워



토우(판다용 건강 뺨), 열린 대나무 잎 등으로 이뤄졌다.

/ 김강우 기자



## ‘보랏빛 향연’ 영동포도축제 개막

8월 27일까지 열려

전국 최대 포도 산지 중 한 곳인 충북 영동서 열리는 제18회 영동포도축제가 24일 시작돼 나흘간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일원서 펼쳐진다. 이 행사는 올해 한국 관광공사의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주령령가요제(26일)도 열린다.

관객들이 맨발로 포도를 밟아 터트리는 색다른 체험 프로그램이 하루 6차례 진행되고, 어린이를 위한 포도 키즈랜드도 운영된다.



에 선정된 향토축제다.

영동축제관광재단은 이번 축제 슬로건을 ‘보고시포도, 먹고시포도’로 정해 보고 즐길 거리와 체험 코너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30분 개막식에서는 올해의 포도왕 시상식과 인기가수 축하공연, 불꽃놀이 등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올해 신설된 전국유소년 풋살페스타(26~27일)와 신인가수 등용문인 제18회

/ 황순호 기자

**에너지 를  
클린하게  
안전하게**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전한SMR개발로  
원전을 미니하게  
**한수 UP!**

한국수력원자력은 한 수 앞선 에너지 기술로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원자력 수출로  
**한수 UP!**

BUSAN is READY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를 한국수력원자력이 응원합니다

**알아서 잘 크는  
내 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 디폴트옵션

이렇게 바쁜데 퇴직연금까지 관리하라고요?  
전문가가 알아서 잘 키워주는 한국투자증권 디폴트옵션으로  
퇴직연금도, 시간도 벌어보세요

디폴트옵션  
자세히보기

유의사항  
가입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약관 필독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되며,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과세기준 및 방법 향후 변동 가능 | 연금외 수령시 세 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 | 대면 계좌개설 시 운용관리수수료 1.5억원 이하 0.15%, 1.5억원 초과 0.10%이며 자산관리수수료는 0.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071호(2023-03-03 ~ 2024-03-02)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고객이야기 #안심로밍 #제로프리미엄



“  
**해외에서는  
마음이 놓여야  
잘 다닐 수 있으니까!  
U+안심로밍은 필수죠~**

예전엔 해외 나갈 때 유심만 생각했었는데,  
해외에서 인증 필요할 때 문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당황했던 후로는 꼭 U+안심로밍 해갑니다.  
해외에서 사용하는지 모를 만큼 데이터 속도, 품질,  
문자도 완벽하고, 시간대랑 기간만 신청하면  
무제한 편하게 쓸 수 있어 좋아요. 공항 갈 때  
신청도 카톡으로 되니까 말 그대로 안심로밍이죠!

‘유플러스 10년 차 고객 김병채님’



QR코드 스캔하고 김병채님의  
와이낫 스토리 더 보러 가기

이런 생각, 김병채님의  
**WHY  
NOT?**

유플러스 안심로밍



## 김하성, 2년 연속 '2루타 20개' 달성…결승 득점까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부동의 1번 타자로 자리매김한 김하성(27)이 다시 한번 헬멧이 벗겨지도록 질주하며 팀 승리에 앞장섰다.

김하성은 2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펙코 파크에서 열린 2023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마이애미 말린스와 휴 경기에 1번 타자 3루 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쳐 시즌 타율 0.280(422타수 118안타)을 유지했다.

전날 구단이 '김하성 데이' 행사를 마련하고 헬멧을 벗기고 씌울 수 있는 '바블 헤드'(고개를 까딱거리는 모형)를 관중 4만 명에게 선물하자, 김하성은 1회 첫 타석부터 또 헬멧이 날아가는 허슬 플레이로 화답했다.

지난 시즌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을 받은 마이애미 에이스 샌디 알칸타라의 슬



1회 2루타를 치고 헬멧이 벗겨진 채 춤추는 김하성

라이더를 공략해 2루타를 만든 것이다.

마이애미 외야진이 김하성의 장타력을 의식해 펜스 쪽으로 몰려나 수비한 사이, 김하성은 회전이 잔뜩 걸린 빗맞은 타구

를 외야 빙 곳에 떨어뜨린 뒤 2루까지 질 주했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부동의 1번 타자

로 자리매김한 김하성(27)이 다시 한번 헬멧이 벗겨지도록 질주하며 팀 승리에 앞장섰다.

김하성은 회전이 잔뜩 걸린 빗맞은 타구

를 외야 빙 곳에 떨어뜨린 뒤 2루까지 질 주했다.

2023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마이애미 말린스와 휴 경기에 1번 타자 3루 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쳐 시즌 타율 0.280(422타수 118안타)을 유지했다.

전날 구단이 '김하성 데이' 행사를 마련하고 헬멧을 벗기고 씌울 수 있는 '바블 헤드'(고개를 까딱거리는 모형)를 관중 4만 명에게 선물하자, 김하성은 1회 첫 타석부터 또 헬멧이 날아가는 허슬 플레이로 화답했다.

지난 시즌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을 받은 마이애미 에이스 샌디 알칸타라의 슬

라이더를 공략해 2루타를 만든 것이다.

마이애미 외야진이 김하성의 장타력을

의식해 펜스 쪽으로 몰려나 수비한 사이,

김하성은 회전이 잔뜩 걸린 빗맞은 타구

를 외야 빙 곳에 떨어뜨린 뒤 2루까지 질

주했다. / 최준용 기자



응씨배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신진서(왼쪽)와 목진석 국가대표팀 감독

### 응씨배 정상 오른 신진서

### "다음 목표는 항저우 AG 금메달 2개"

평소 강심장으로 알려진 신진서(23) 9단이지만 '바둑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응씨배에 대한 부담감은 어쩔 수 없었던 모양이다.

신진서는 23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응씨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결승 3번기 제2국에서 세迥 9단을 불

지방에 놓았는데 그때 이겼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응씨배 준비 과정에 대해선 "국가대표팀에서 많이 배려해 줬다"며 "진천선수촌에서 동료들과 대국을 많이 했고 공동 연구도 했다"고 전했다.

올해 두 가지 목표 중 하나인 응씨배에서 우승한 신진서는 이제 다음 달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정조준했다.

"큰 짐을 덜었으니 아시안게임을 위해 좀 더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힌 그는 "남은 한 달 동안 속기를 많이 단련해서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시안게임 경기는 전부 이기겠다는 각오이며 목표는 당연히 금메달 2개를 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준석 기자

## 한국 남자배구, 중국과 아시아선수권 4강 티켓 놓고 격돌



한국 대표팀 주포로 활약하는 하수봉

20년 만의 아시아남자배구선수권대회 우승에 도전하는 한국 남자배구 대표팀이 4강 길목에서 숙적 중국과 만난다. 중국은 23일 밤 이란 우르미아 알가 디르 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아배구연맹(ABC) 남자 아시아선수권대회 12강 토너먼트에서 인도에 세트 점수 3-2로 진땀승을 거뒀다.

앞서 인도네시아전에서 3-2로 간신히 승리하고 먼저 6강에 선착했던 한국은 중국이 인도를 제압하면서 24일 오후 9시 45분에 열릴 6강 경기에서 중국과 맞붙게 됐다. 한국과 중국은 나란히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 상대에 고전하며 탈락 문턱까지 갔다.

국제배구연맹(FIVB) 세계 랭킹 27위 한국은 세계 63위 인도네시아에 5세트 한때 매치 포인트까지 허용하며 고전했다.

세계 26위 중국 역시 72위 인도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풀 세트 혈전을 벌였다. 이번 6강 토너먼트는 다음 달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부활을 노리는 한국 남자배구에 귀중한 '실전 모의고사' 기회다. 한국이 중국을 제압한다면 25일 오후 9시 45분에 대회 4강전을 치른다. 만약 패하면 26일 오전 0시 15분에 별어질 5~6위 순위 결정전으로 밀린다.

/ 이찬우 기자



여자 핸드볼, 일본 제압하고 올림픽 본선 진출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적진에서 열린 한일전에서 역전승을 거두고 11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이뤄냈다.

헨리크 시그넬(스웨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23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아시아 예선 마지막 4차전에서 일본에 25-24로 이겼다.

홈 코트의 이집점을 등에 업은 일본에 어렵게 승리한 한국은 4전 전승으로 예선을 1위로 마쳐 올림픽 본선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한국과 일본은 비록해 중국, 카자흐스탄, 인도까지 5개국이 참가해 풀리그로 치러진 이번 예선에서는 1위 팀에만 올림픽 본선행 티켓을 준다.

이날 한일전에서 이긴 팀이 본선행을 확정하는 상황이었다.

3승 1패로 2위를 한 일본은 다른 대륙 국가들과 겨루는 최종 예선에서 올림픽 본선행을 위한 마지막 도전에 나선다.

남녀를 통틀어 최다 올림픽 본선 연속 진출 기록을 보유한 한국 여자 핸드볼은 이번 대회를 통해 이 기록을 11회로 늘렸다.

/ 강동준 기자

##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

**경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세무상담**

**조세불복지원**

**경정청구**

**상속, 증여세 자문**

**세무조사지원**

**세무신고**

###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

예규, 판례 등의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약속 드리며, 정확하고 문제없는 세무신고 및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저희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의 기업이념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원활한 소통, 빠른 피드백 등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최선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고객 여러분께서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258 업무 A동(신한은행 건물) 10층  
| 전 화 | 02)532-0456      | 팩스 | 02-532-0121

## 정동원, '히트곡 제조기' 윤명선 작곡가 곡으로 컴백

9월 1일 신곡 음원 한 곡 선공개

가수 정동원이 윤명선 작곡가와 만났다. 정동원이 9월 중순 리메이크 곡으로 편성된 새 미니앨범을 발매를 예고한 가운데, 오는 9월 1일 신곡 음원 한 곡을 선공개하고 발매한다.

오늘 22일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의 9월 1일 발매 예정 신곡은 장윤정의 '어머니', 임영웅의 '인생찬가', 송가인의 '엄마 아리랑' 등 수많은 명곡들을 배출하며 '히트곡 제조기'로 불리는 작곡가 윤명선의 곡이라고 밝혔다.

정동원은 자신만의 특유의 감성을 살려 곡을 열창했으며, 윤명선 작곡가의 극찬을 받으면서 원샷원킬로 녹음을 진행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윤명선 작곡가는 정동원



의 노래를 들은 뒤 "애절한 감성이 더욱 깊어졌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정동원의 신곡은 믹싱 과정에서 수십 번의 수정을 거치며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한 곡으로, 윤명선 작곡가가 정동원의 감성을 믿고 오직 정동원을 위하여 쓴 곡으로 알려졌다. 9월 중순 발매를 목표로 준비 중인 신보는 리메이크 곡으로 편성된 미니앨범으로, 팬들에게 신청을 받은 곡들을 정동원이 직접 듣고 부르며 엄선한 곡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오는 9월 1일 발매되는 신곡 역시 앨범에 수록된다.

정동원은 최근 MBN '지구탐구생활'에서 예능감을 선보이며 활약했으며, 첫 영화 데뷔작 '뉴 노멀'이 제 27회 판타지아 국제 영화제에 초청받는 등 다채로운 행보를 선보이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한편, 정동원은 오는 9월 1일 선공개 신곡을 공개하고 9월 중순 새 미니앨범을 발매하고 컴백한다.

/ 강효진 기자



### 세븐틴 日 베스트 앨범, 오리콘 데일리 차트 1위

그룹 세븐틴이 지난 23일 일본 첫 베스트 앨범 '올웨이즈 유어스'(ALWAYS YOURS)를 내고 오리콘 데일리 앨범 차트 1위에 올랐다고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가 24일 밝혔다.

'올웨이즈 유어스'에는 신곡 '이마 - 이쁜 이프 더 월드 엔즈 투모로우 -(Ima - Even if the world ends tomorrow -)'와 '사라 사라'(Sara Sara)를 포함해 총 27곡이 수록됐다.

'이마 - 이쁜 이프 더 월드 엔즈 투모로우 -(I'm Even if the world ends tomorrow -)'는 기타 선율과 서정적인 멜로디가 특징인 노래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 와도

/ 이은정 기자



영화 '봉'

## 한국고전영화 '봉' 4K 화질로 본다…영상자료원 유튜브에 공개

한국영상자료원은 디지털 복원작업을 거친 이두용 감독의 영화 '봉'(1985)을 이달 28일 오후 10시 유튜브 한국고전영화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영상자료원은 HD 화질로 복원한 고전영화를 공개했지만, '봉'은 해상도가 더 높은 4K로 복원됐다. 영상자료원이 4K 화질의 고전영화를 내놓은 건 처음이다.

1920년대 산간벽지를 배경으로 한 '봉'은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노름꾼 남편을 둔 여자를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로, 나도향의 소설이 원작이다. 배우 이미숙의 열연으로 주목받았다.

개봉 당시 흥행한 이 영화는 다양한 후속작이 나오

면서 예로물의 이미지를 갖게 됐지만, 작품성이 뛰어나 당시 다른 예로물과는 차별화된다는 게 영상자료원의 설명이다.

다수의 국내 영화제에서 작품상, 감독상, 연기상을 받았고, 아시아태평양 영화제에선 여우주연상과 음악상을 받았다.

현재 유튜브 한국고전영화 채널에서 해상도가 낮은 SD 화질로 볼 수 있는 이 영화는 조회수가 4천400만회를 넘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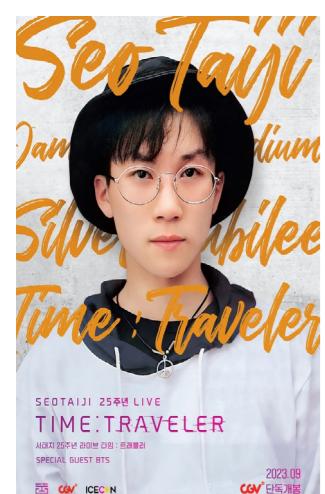
영상자료원은 '봉'을 시작으로 '축제'(1996), '안개마을'(1983), '서편제'(1993) 등 고전영화를 4K 화질로 복원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영상자료원이 운영

하는 시네마테크KOFA에서 4K 화질의 고전영화를 상영하는 '4·K-클래식' 프로그램도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

/ 김윤성 기자

## 서태지 '데뷔 25주년 콘서트' 실황 내달 극장 개봉

방탄소년단과 함께 무대 꾸민 2017년 주경기장 콘서트



CJ CGV는 가수 서태지의 공연 실황 '서태지 25주년 라이브 타임: 트래블러'를 다음 달 6일 단독 개봉한다고 23일 밝혔다.

2017년 9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서태지 데뷔 25주년 기념 콘서트로, 서태지가 가장 최근 선보인 공연이기도 하다.

당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특별 게스트로 참석해 화제가 됐다.

이번 공연 실황에서도 서태지가 방탄소년단과 함께한 '난 알아요', '검백함', '교실 이데아', '하여기' 등 8곡의 무대를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1992년 3월 발표한 서태지와 아이들의 1집부터 2014년 10월 발표한 서태지 9집까지 수록된 각종 히트곡도 선보인다. 용산아이파크몰, 광주금남로, 대구, 대전, 전주효자, 제주노형 등 전국 40개 CGV 지점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티켓값은 2만원이다.

/ 신해운 기자



### 강하늘·정소민 주연 영화 '30일' 10월 개봉

강하늘·정소민 주연의 코미디 영화 '30일'이 개천절인 오는 10월 3일 개봉한다고 배급사 마인드마크가 24일 밝혔다.

서로를 견디다 못해 이혼하게 된 젊은 부부가 교통사고로 동시에 기억을 잃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강하늘이 지성과 외모는 갖췄지만 찌질한 남편 정열을, 정소민이 당당하지만 억센 면이 있는 아내 나라를 연기했다.

'위대한 소원'(2016), '기방도령'(2019) 등 코미디 영화를 선보

여온 남대중 감독이 연출했다.

/ 장지훈 기자

## 세계연합신문

[www.wunionnews.com](http://www.wunion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조영광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희진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광고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영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DEAR EARTH

TIME WALKER

시간을 걷는 자

2023.8.4-9.3

## 무더운 여름, 판교점에서 즐기는 SF 시간 여행

### 마치 한 편의 SF 영화같은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전시

무더운 여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시간과 차원을 넘어 과거의 지구를 구하는 여행을 떠나세요.

5m 높이의 4면 스크린과 생성형 AI 기술로 즉석에서 구현되는 시간여행자 증명사진은 잊을 수 없는 여행의 기억을 선물합니다.

2023.8.4(금) - 9.3(일) 현대백화점 판교점 10F 토파즈홀

성인 12,000원 · 청소년/아동 10,000원

지금 예매하기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point

현대백화점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면세점 | 더현대마트 | 현대홈쇼핑 | 현대나루 | 현대그린푸드 | 한섬 | 더한섬디컴 | 현대리바트 | 현대L&C | 지누스 | 현대렌탈카이 | 현대드림투어 | 현대아린아책미술관



우리금융그룹

World EXPO 2030  
BUSAN, KOREA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 소상공인, 더 오래 걸을 힘

우리 청년, 더 어깨 펼 힘

우리 중소기업, 더 날개 돋칠 힘

우리가 힘을 모을수록

우리의 힘은 강해질 테니까

# 우리 모두에 우리의 힘을

|우리은행 대국민 상생금융 프로젝트|

우리은행